

<설씨이대록>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실현과 그 이면의 상황

서 신 혜*

<목 차>

1. 시작하며
2. <설씨이대록> 전개의 중심
3. 소속회의 자아실현 양상
4. 이면에 담긴 여성의 상황
5. 마치며

【요 약】

<설씨이대록>은 재색(才色)을 중심으로 내세우는 설기수와 군자(君子)다운 행실을 견지하는 소속회 사이의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장편한글소설이다. 이들 남녀 부부의 갈등 외에 5처 10첩에 얽힌 여러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작품의 시종(始終)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소속회는 남편과의 갈등과 5처 10첩의 견제 등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아실현의 욕망을 뚜렷이 드러내어 결국 ‘가법질서의 확립’이라는 업적을 이룩해 낸다. 이 일은 남자의 경우 현상(賢相)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속회는 이를 통해 현상(賢相)과 맞먹는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 작품에는 남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한 여인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의전담교수

의 삶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5처 10첩 등 여인들이 처한 환경과 그들의 지휘, 그들에게 가해지는 가부장적·남성 중심적·폭력적 원리가 이면에 잘 드러나 있기도 한다.

1. 시작하며

국문학 연구자들이 늘어나며 연구역량도 신장되어 그간 미처 다루지 못했던 수많은 작품들이 발굴되고, 장편의 작품들에까지 연구 영역이 넓혀지고 있다. 한글장편소설 또는 가문소설에 대해서도 각 작품들의 연작 양상을 밝히는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소설의 창작이나 향유 등에 관한 다양하고도 재미있는 사례들이 이런 과정에서 속속 밝혀지기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선 작품의 흥미를 이어 재창작한 파생작들도 밝혀지고 있는 점 등은 고소설사상 상당히 흥미롭다.¹⁾

이 글에서 주목하는 <설씨이대록>은 <소현성록>의 파생작이다.²⁾ <설씨이대록>은 <소현성록>의 등장인물이었던 소운성, 석부인 등을 다시 등장시키되 그들의 다음 대(代)인 소운성의 딸 숙희가 설기수과

1) 조용호(1996), 임치균(1996) 등 단행본으로 발간된 것도 있고, 차충환(2005. 9), 정선희(2005.12) 등 소논문으로 보고된 것도 매우 많다.

2) 파생작이란 원작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에피소드나 주변인물을 가져다가 독립적인 새로운 이야기를 붙여 또 다른 한편의 소설로 엮은 것을 말한다. <설씨이대록> 역시 <소현성록>에 나오는 일부 인물을 따로 독립시켜 다른 한 편의 장편소설로 만든 파생작이다.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이화여대 박사논문, 1996), 191-197쪽에서 <설씨이대록>이 <소현성록>의 파생작임을 밝혔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하지 않는다.

<설씨이대록>의 작가나 창작시기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다. 이 작품과 함께 <소현성록>의 파생작으로 알려진 <한씨이대록>이 옥소 권섭이 1749년에 쓴 기록(「先妣手寫冊子分配記」)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설씨이대록> 역시 비슷한 시기에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혼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소설을 꾸렸다. 즉 설기수와 소속회 부부 사이의 갈등, 설기수의 제2부인인 공주와 제1부인인 소씨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6처10첩³⁾ 사이의 각종 모해 사건을 거쳐 결국 소씨가 설씨 집안의 법도를 세우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설씨이대록>의 이본은 매우 여럿이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채 각기 일정부분의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본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에 장애가 되었다. 다행히 몇 해 전 김수봉 교수께서 다양한 이본을 정리하여 가장 선본의 형태로 결합한 후 역주해한 것이 있어⁴⁾ 후학들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여 박영희 교수의 논문⁵⁾이 유일한 단일 연구이다. 그밖에 몇몇 글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될 뿐 특별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필자는 <설씨이대록>을 면밀히 살핀 결과 이 작품은 여성 주인공의 시각에서 접근할 때 보다 더 작품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 중심을 두어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것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당대의 실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피려 한다.

-
- 3) 설기수가 10첩을 집에 들여다가 희롱하던 것을 나중에 소속회가 쫓으로 받아들여 대우해주었다. 어떤 부분에서는 10창이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10첩이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4) 김수봉 역주해, 『설씨이대록』(국학자료원, 2001). 김수봉은 여기에서 그간 알려진 여러 이본들을 대조하여 선본을 찾아 그 줄거리대로 배치한 후 한쪽에 원문을 다른 한쪽에 현대어역을 실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것은 이 책의 쪽수에 따른다.
 - 5) 박영희, 「설씨이대록 연구」, 『한국고전연구』11집(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50-79쪽. 이 글에서 논자는 <설씨이대록>의 서지를 정리하여 이후 연구에 도움을 주었으며, 작품의 줄거리를 정리하여 갈등구조를 설명하였다. 특히 <소현성록>과의 관련성을 주목하여 설명한 점이 흥미롭다.

2. <설씨이대록> 전개의 중심

작품의 주 인물은 설기수와 소속희라는 두 남녀이다. 주위 사람들의 큰 칭찬을 받는 두 남녀가 만났으나 이들 부부는 처음부터 갈등한다.

“남의 약관의 기를 것이 옥당홍의 주인되고 집의 들미 천하 미식을 다 너 기물을 숨아 칠위 부인과 급존십의 첩을 갖초아 당마드 메워두고 반싱을 풍유로 질기리니 엇지 구구이 일쳐로 늘그리요. 또한 안희을 구히디 소망이 목히 숙여를 취치야야 낭정흔 가인을 구히야, 일디 숙여는 과인히야 가부의게 이롭고 가인은 남즈의 쾌락흔 효디르”(34-35쪽. 밑줄-필자, 이하 같음)

설기수가 혼인에 대해 가진 생각을 드러낸 부분이다. 흔히 여자는 색과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후자를 강조하여 숙녀(淑女)라 하고 전자를 강조하여 미인(美人)이라 한다. 설기수는 ‘숙녀’나 ‘덕’만을 강조하는 당대 다수의 사람들과 달리 미색을 중시한다. ‘가인은 남즈의 쾌락흔 효’, 즉 미녀는 남자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면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아내라고 천명하면서 스스로 그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상대자 소속희는 그와 정반대의 인물이다. 병부상서 겸 추밀원 태자태부 진왕 소운성이 슬하에 둔 여러 자식 중 특히 숙희는 빼어난 기상을 품고 성품과 행실이 현인군자(賢人君子)나 열장부(烈丈夫) 같으며 글씨와 문장이 넉넉하여 장강대하(長江大河)를 기울이는 ‘엄연 호걸 장부요 소소 여즈 아니’다. 때문에 딸인데도 많은 자식 중에서 특히 진왕이 편애하고 귀히 여기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상대를 삼았다고 했다.(37쪽)

여느 사람과 달리 ‘미색’을 강조하는 설기수와 여느 여성과 달리 특히 ‘군자’다운 기색이 엄연한 소속희의 모습이 뚜렷이 대비된 가운데 작품이 시작되어, 부부 갈등이 계속된다. 중간에 제2부인인 공주 등 6처 10창(媼) 사이의 음해사건을 거치면서 그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다. 그러나 음해사건의 시작과 전개와 해결은 이들 부부 갈등에 대해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계속되는 부부 갈등에서 누구에 의해 상대가 거부되는가에 변화를 주었을 뿐 이야기는 계속된다. 처음에는 색(色)을 밝히는 설기수가 엄정한 덕(德)으로 뭉친 소속회를 거부하며 10창 등과 놀아나는 식이었다면, 음해 사건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소속회가 설기수를 상대해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쟁송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음해사건을 드러내는 데에 작품 중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음에도, 이 소설은 쟁송을 하는 ‘처첩들’이 아니라 ‘부부’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를 중심으로 살피더라도 그 초점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 작품은 달리 읽힐 수 있다. 연구의 선편을 잡은 박영희 교수는 이 작품을 두고 ‘개인의 욕망을 중시하던 설기수가 소씨의 가문위주의 의식에 굴복하는’ 작품⁶⁾이라 했다. 혼인 말이 오고갈 때부터 줄곧 색(色)을 강조하는 설기수가, 결국 소속회가 5처 10첩을 대상으로 정한 가법(家法)에 따라 생활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욕망이 좌절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겉모습만 그럴 뿐 설기수는 여전히 여섯 명의 아내와 열 명의 첩을 한꺼번에 거느리고 살게 된다는 점에서 욕망이 좌절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설기수의 욕망과 좌절이라는 면보다는 오히려 여자주인공 소속회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또 박영희 교수는 <설씨이대록>의 독자는 주로 여성이라 했으며 필자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박영희, 앞의 논문, 71쪽). 남성과 여성의 인물형상화를 비교할 때, 설기수나 그의 아버지 설풍교는 그 모습이 희화화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설기수의 아버지 설풍교가 늦은 나이에 가족들 몰래 소설 비영을 들여서 문고리를 걸어 놓고 즐기다가 아들들에게 들키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족들 다 있는 곳에서 손자가 “조부 오날 아날의 누울 다려 즈더이잇가.”라고 하는 바람에 자제들과 부인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일도 있었다.(234-238쪽) 부인의 계속되는 냉대와 잠자리

6) 박영희, 앞의 논문, 66쪽.

거부에 대해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며 애 타게 비는 설기수의 모습 등이 작품 곳곳에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여주인공 소속회는 여군자다운 행실에 흠이 갈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 사실 아내가 있는 집에서 10명의 창기를 데리고 놀고 대낮에 제2부인인 공주의 방에서 함께 희롱하는 것 등은 잘했다고 하기 어려우나,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자신의 애타는 마음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등의 설기수의 행동은 희로애락에 솔직하다며 긍정적으로 보아줄 여지가 충분하다. 다소 경박한 듯해도 이는 사람의 선악이나 시비(是非)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소속회는 남편의 모든 행실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는다. 이상한 것은 작중 화자나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 시종일관 계속되는 소속회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평가를 내비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한 여성 소속회를 중심으로 그의 자존심을 한껏 올리며 그의 편에 서서 작품이 진행된다. 여성이 독자요 작자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성을 중심에 두고 그린 작품이라면 작품을 이해할 때에도 이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설씨대록>에서는 작품 시작부터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부부 갈등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한결같이 운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운수 탓으로 돌리는 언급은 ‘저의 외입함미 가히 실성흔 년소 경박지 일즉 창악의 무드러 술구이 바른 형동을 일코 청고흔 모습 이 병듬의 여차흔니 혼갓 저의 불명함미리오 천시 나의 불형이라’(122-123쪽) 등 이루 다 들 수 없을 만큼 많다.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나 형제, 인척 등 주위 사람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들 한다. 심지어 79쪽에서는 서술자가 직접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어 ‘기수 불명 아야 양인의 익운이 중하미라.’, 즉 ‘기수가 총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액운이 무겁기 때문이다.’ 라며 이 문제를 봉합하고 있기도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 부부가 ‘왜’ 갈등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부간의 불화로 설기수가 6처 10창을 거느리는 동안, 집안에

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공주 등의 음모이고 소씨는 애매하게 죄를 씌게 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후에도 이 작품은 끝나지 않았다. 이들 부부 관계 역시 어느 부부처럼 살가워지거나 화락(和樂)해 지지 않는다. 아니 소씨가 그렇게 하기를 완강히 거부한다. 그러다 남편 설기수가 진정에서 우러난 사과를 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건강을 잃은 아내를 위해 밤낮으로 간호하며, 때로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는 등 자존심을 다 버리고 용서를 간구하자, 소숙희는 그간의 일에 대한 노기를 풀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소숙희는 계속해서 남편과 한 방에서 자기를 거부했다. 종일토록 앉아서 이야기하다가도 밤이 되면 다른 곳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나날이 수개월 넘게 계속되었다. 시부모 등이 아무리 간절하게 타일러도 소숙희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남편과의 갈등만 있었을 뿐 모든 면에서 예의와 법도에 맞게 행동하며 시댁 식구들에게 깎듯했던 소숙희가 유독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329-335쪽)

설기수가 반성하며 사과했고 소씨의 노기(怒氣)도 풀렸는데, 기수를 멀리하는 소씨의 태도에 변함이 없는 것을 보면, 전반부의 ‘색·덕’이라는 요구사항의 충돌’이나, 6처 10창이 한 집에 살면서 ‘쟁충(爭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일’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거나 이 작품의 지향점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부부간 심각한 문제는 운수에 돌려버린 후 막상 힘써 표현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것은 ‘소숙희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써 자신의 태도와 목표를 지키다가 결국 가정의 치리자로 서는 과정’이다. 즉 작품의 중심은 부부 중에서도 바로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다.

소씨는 오랜 기다림 끝에 가족들이 모두 완벽하게 자기에게 감복하고 무조건 따르기로 약속한 후에야, ‘요구사항’을 말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집안의 법칙을 정하였다. 그 말대로 모든 일이 질서를 잡고 그녀에 대한 칭찬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야 작품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어디까지나 둘 사이의 갈등을 풀고 작품을 마무리 짓는 것은 소씨에 의해

서였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소씨의 굳건한 ‘요구’ 또는 ‘내면의 욕구’에 중심을 맞추어 파악할 때 보다 더 실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3. 소속회의 자아실현 양상

처음 소속회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면 마치 ‘재자가인(才子佳人) 소설’에 등장하는 ‘남자주인공’을 소개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누구의 딸이라는 앞의 설명만 없으면, 한 시대에 이름을 드날릴 한 남성 인물이 등장한 것처럼 되어 있다. 소속회는 ‘뛰어난 지모(智謀)’가 있고 ‘도도한 의론(議論)’을 펼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인물이라 했다. 또 사람의 자취를 보면 바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하였다. 흔히 지모나 의론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한 나라를 일으키고 안정시킬 현상(賢相) 또는 국사(國師), 충신(忠臣)의 필요조건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소속회가 작품의 처음부터 이런 태도로 소개되고 그 모습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작가의 지향이 여기에 맞추어 있음을 알 수 있다.(36-38쪽)

소속회는, 보통 여성이 하고 있는 일이나 그들이 보이는 태도를 우습게 여긴다. 작품에서는 ‘어불엽슨 가업과 닝담호말 우니역여 성언한 지모와 상활한 의논이 도도호야(37쪽)’라 설명했다. 그녀는 여느 여성의 삶이나 의식에 반감을 품고 스스로 그런 여성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소속회의 이런 군자다운 태도에 관해, 보기만 하면 ‘즈연 송구호’고 너무 ‘식식 엄숙호야’(57쪽) 여자답지 못하다고 하며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오직 남편 설기수 뿐이다. 여느 여자와 같지 않은 군자다운 태도는 설기수가 작품의 처음부터 미색을 밝히며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고 천명한 것과 대(對)를 이룬다.

이것이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런 대조를 통해 소속회를

더욱 빛나게 하기도 한다. 즉 남편의 이런 형상은 결국 소속회를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라 볼 수 있다. 이후 제2부인인 공주 등이 벌이는 음해·모함의 화소 역시 결국 소속회의 변함없이 군자다운 모습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온갖 투기와 모함에 대해 소속회는 전혀 대꾸를 하거나 상대해 주지 않은 채 엄숙하고 위엄 있는 군자다운 태도를 지킨다.

흔히 조선시대 여성은 삼종지도(三從之道)라 하여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 사는 부속적이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런 인식 속에는, 여성은 스스로 어떤 뚜렷한 주견(主見)을 가질 수 없으며 남자 밑에서 그들의 그림자로 살아야 한다는 논리가 들어 있다. 그러나 소속회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변함없이 더 이상 삼종지도 등의 이름으로 남자에게 부속되거나 그를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 했다. 어떤 경우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 않았고 온갖 오해에 대해 자질구레하게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내 맹세하야 저로 하여금 정인 군지 되게 인도치 못하면 나 소속회 단실노 숙네 아시오 가인이 아니라.’(123쪽) 하며 오히려 남편을 이끌려고 한다.

결혼 전 소씨의 집안에서는 부친이 못 아들딸 중에 그녀의 군자다움을 사랑하여 모든 일을 그녀와 의논한다. 그녀의 세상 보는 눈과 국량, 판단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부자간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동등한 대상으로 인정해 주었다. 어려서부터 이런 뚜렷한 자기 의견과 존중받는 지위를 가졌던 소씨는 혼인 후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 남편의 무관심이나 온갖 회유에도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너 임의 스택을 듯듯치 닥그는 제 임의 박터하니 그 허물이 저 신상의 잇고 너게는 잇지 아니리니 그 독이 무엇시 부그려오며 너 힘술이 불츙픽악하야 제 차마 처자로 디접지 못하여 하면 두려오려이와 첩수불민하는 저의게 죽죄하미 업나니 엇지 두려오리요. 가부 은이 미혹하야도 스님이 업스녀든 하말며 제 임의 날을 초기갓치 하니 너 저을 위하야 싱각고 저의 총을 일을가 저히 적비하말 일우면 그 이리 엇더하리요...도르 염컨터 오르니 가죽하고 삼강의 계춌미 업스니 일성이 쾌낙

흐니 히고로 십습 청춘으로 햏야곰 간장을 슬오며 단명홀 정을 흐리요.
소제는 소견이 맞기 나지 아니흐나이다.”(69-70쪽)

설기수의 누이나 동서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들이 두 부부의 문제를 말하며 소씨를 걱정하자 소씨가 한 대답이다. 기수가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는 허물없이 자기 몸을 닦고 있으니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다고 하고, 또 오히려 이렇게 지내니 생활이 가지런할 뿐 걱정이 없다고 하고 있다. 때에 따라 나기도 머물기도 하는 유가의 이상적 출처관(出處觀)에 입각한 군자의 모습을 가정 속에서 형상화한 것이다.

이런 소씨의 삶에 대해서, 소설 속 여러 인물들은 그가 아무리 ‘여장부’ 같은 여인이지만 왜 서러운 마음이, 근심하는 마음이 없겠느냐며 걱정했다. 그런 걱정 속에서도 소씨는 자신의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꺾듯이 버틴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사는 삶을 추구하는 여느 여인들과 달리, 그에게는 남편과의 불화를 그렇게 꺾듯이 버틸 만큼 심각하고 간절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작품이다. 그가 간절히 바랐던 그 소망은 무엇인가?

소속회가 시종일관 유가적인 군자의 모습을 견지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설씨이대록>에서 소속회는 기존 여성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자아상을 세워서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뛰어난 위인, 인재가 되기를 추구했다. 물론 당시 가장 이상적인 인재가 군자(君子)형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인간상을 추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태도를 견지하여 6처 10첩 간에 벌어진 온갖 일들을 해결하고 결국은 가법을 확립함은 물론, 남편이 이들 처첩들을 대하는 방식까지 조절한 후에야 비로소 화려한 생활을 한다. 여기에서 작품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여즈의 덕이 호호 깊푸면 능히 나라홀 붓들고 집을 보하느니 진실로

느라히 양신이 업슬 거시니 초왕의 꾀도되미 하회공이요. 주 선왕의 중흥
 하미 당황후의 팔즙흔 공덕이라. 금일 소시 방통흔 가부를 현인 군즈되괴
 하고 무릇 강악한 적국을 숙여되괴하니 진실노 틱스 틱임이요 금세의 소
 속회라. 스틱 돈심이 종시 혼갈갓트야 말숨을 너미 종신 불기하고 혼변
 뜻슬 정하미 구지 정하니 비컨디 세한의 송빅과 설승의 청죽 곶트여 종
 닌 마암을 두 가지로 아니며 열일적의 설상가빙 갓트야 므츨넌 듯슬 세
 우고 풍유화스를 만동케 하니 전후 형세 언형이 붓을 들어 부족하는 일
 이 없고 틱중의 느죽하야 스탄의 집을 흥하괴 하니 엇지 여중 영웅이 아
 니며 스군직 아니리요. 가히 빈혀를 썩히미 선왕이 썩드라 중흥하고 소시
 는 빈혀를 썩히미 설기수 썩드라 정인군자 되드.(337-338쪽. 밑줄-필자)

작품의 맨 마지막 부분이다. 어진 신하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있
 으면 나라를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여성이 바로 그런 존재
 라고 하면서 ‘현상(賢相)=덕부(德婦)’라는 구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
 성 중에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태사·태임과 소속회를 동일 선상에
 놓았다. 흔히 한 국가를 온갖 어려움과 위태로움에서 건진 공을 세운
 사람을 영웅이나 군자라고 치켜세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소속회를
 두고 한 집안을 일으키고 안정시키는 일을 한 ‘여중 영웅이 아니며 스
 군직 아니리요’라 한다.

17세기 이후 여성들은 부계적 가족제도의 일원으로 살 수밖에 없었
 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현실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이루려고 노력했다. 예컨대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
 없었던 화순옹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순구⁷⁾는 ‘조선 후기 열녀는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 여성에 대
 한 억압의 산물임에 분명하지만, 당시로서는 여성들의 중요한 자기표
 현 수단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일당 같은 여성은 ‘여자로서 태
 임과 태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약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스스로 포

7) 이순구,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0집
 (한국고전여성학회, 2005.6), 136-137쪽.

기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윤지당의 말을 인용하여, 비록 여자라도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힘써 강조하기도 했다.⁸⁾ 농암 김창협 의 셋째 딸은 유독 '여사(女士)'의 기질이 강하여 농암이 매우 사랑하였다고 한다. 그 딸은 평소 '내가 남자라면 다른 소원은 없고, 오직 깊은 산 속에 수백 권의 책을 쌓아두고서 그 사이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다.⁹⁾ 그녀는, 남성의 굴레 속에서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사의 기질을 키웠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강렬한 욕망을 지닌 채 살았다. 이런 예들은 당시 여성들이 그저 남성에게 대해, 또는 집안에 대해 부속적·희생적으로만 사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포기했던 것은 아님을 알게 해 준다. 그들은 스스로 자아의 욕망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실현을 꿈꾸며 세상을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와 <소씨이대록>은 서로 연결된다.

소속회는 '사군자'가 되기를 어려서부터 바랐다가 결국 이를 성취한 인물로 그려졌다. 당시 사정상, 여성이 사회에 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을 세울 수는 없었다. 가정은 그런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공간이다. 여성의 사회편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이 자아성취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가정에서의 성취였다. 이를 위해 스스로 덕을 강조하며 여사의 모습을 형성한 것이었다. 때문에 여성은 '한 집안'의 범위에서 자아를 확립하고 스스로 어떤 인물이 되고자 노력한다. 설기수가 조정의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음에도 조정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철저하게 가정 문제만으로 작품을 구성한 것도 이런 때문이다.

소속회가 가법 정립을 궁극 목표로 삼아 결국 그것을 실현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아 성취였

8) 『정일당유고』, 尺牘41.

9) 金昌協, 『農巖集』, 「亡女吳氏婦墓誌銘 并序」. 관련논의는 강혜선, 「농암 김창협의 묘지명 연구」,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태학사, 1998), 387-408쪽 참조.

다. 이것을 ‘현상(賢相)=덕부(德婦), 가법 정립=여성의 성취’라고 도식화할 수 있겠다. 그것을 위해, 당대 이데올로기에서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군자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었고, 온갖 시련과 음모가 닦쳐어도 이런 자세를 더욱 철저하게 지켰다. 그리하여 결국 ‘군자다운 삶’을 살고 ‘군자다운 성취’를 이룬 것이다.¹⁰⁾

4. 이면에 담긴 여성의 상황

이상의 논의를 요컨대 이 소설은 소속희라는 한 여성의 입장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여성도 능력이 있으며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소속희라는 한 여성이, 남자라면 ‘어진 재상’에 해당할 만큼의 지위나 평가를 얻을 수 있었으니 그 삶이 성공적이었다 할 만 하다. 그러나 소속희를 넘어 다른 처첩들과 전체 여성의 입장과 상황을 생각해 볼 때는 그 의미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소속희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남편 설기수와와의 불화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불화의 근본 원인은 남편의 호색에 있었다. 혼인 전부터 10창을 집에까지 들여와 즐기는 상황에서 아내를 맞아들인 행위는 이미 ‘두 남녀 사이의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합’이나 ‘가정 평화 유지’를 애초에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남성의 입장에서 쾌락을 위해 또는 자손번창이라는 미명하에 일부다처제를 유지했기에 <설씨이대록>에서 설기수와 소속희, 그리고 여러 처첩들 사이에 발생

10) <소현성록>에 대한 선행 연구 중에서 <소현성록>을 ‘여성들의 다양한 자존의식을 표출하고 그녀들의 세계를 탐색’한 소설이라고 평가한 내용은 여럿 있었다. 정창권(1998), 백순철(1999) 등 참조. <설씨이대록>을 위와 같이 ‘여성의 자아실현’으로 읽는 것은 <소현성록> 연작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특징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한 문제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남성의 입장에서 일부다처제의 특권(?)은 버리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한 가문의 안정과 평화와 번창은 필요했기에 이를 위해 여성에 대해 가해지는 규제는 더욱 강했다. 규제의 여러 방식 중에서 <설씨이대록>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투기(妬忌)이다. ‘투기’하는 ‘악’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며, 이 법칙을 절대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에서 말하는 가부장적·남성적 질서를 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주가 거짓으로 소씨와 10창을 잘 대접해 달라고 하자 기수는 ‘투기 업사문 입사 곳고 여진 말슴은 변회를 효측하는 드시’ 한다 하며 공주를 더욱 칭찬하고 사랑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설기수는 공주에게 투기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때부터 완전히 공주를 신뢰한다.(134쪽) 이 맥락대로 하면 여자는 투기가 없어야 완벽한 이상적인 여자로 완성되는 것이다.

공주의 시중을 드는 여상궁 등이 공주의 기세만 믿고 소씨의 처소에 와서 난동을 부리자 소씨는 예를 모른다하여 매로 다스린다. 이에 대해 공주가 남편 기수에게 알리자 기수는 ‘대악 투비 당당이 내칠 죄를 저주고 내 부명을 밧즈와 편히 머므로니’(169쪽) 하며 악하고 투기 많다는 이유로 화를 낸다. 투기하여 악한 일을 하였으니 당연히 내칠 만 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소씨에게 노를 발한다. 또 누명을 벗은 후에 소씨는 자기를 투기하여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모든 부인들과 10창에 대해서 한없이 너넉했다. 작품에서는 ‘소시 비록 제 부인이 비록 독흔 말과 투악은 쓴치느 화기 돈연하야 즐기미 업스니 소시 불쾌하고 쏘 상서의 편벽함을 흔하야 상서를 더욱 멀이하며 제 부인을 가지록 후디히니’(322쪽)라 하고 있다. 이전에 했던 행동 때문에 서로 서먹한 것을 풀려고 소씨가 노력하고, 또 남편이 자기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서 다른 여인들에게는 소홀하다 하여 스스로 남편을 멀리했다 하였다. 이야말로 투기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될 것이다. 그에 대해서 ‘비록 토목 심장이 라도 감격히니 제인이 점점 밋음을 돌려 감화히미’라 하며 칭송을 끊이

지 않았다. 투기 없는 이에 대한 칭찬은 작품 속에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처럼 여자의 가장 큰 악은 ‘투기’이며, 또 가장 큰 덕이 ‘투기 없음’이라는 공식이 끊임없이 적용된다. 실은 한 남성과 여러 여성이 함께 사는 일부다처제의 상황에서는 여성들 서로간에 투기의 감정이 없을 수 없고, 또한 다툼이나 충돌이 없을 수 없다. ‘시앗이 보면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는 속담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럼에도 <설씨이대록>에서는 ‘남성의 호색’을 ‘인정해야 할 자연스러운 것’으로 처리하면서 ‘투기’를 죄악시한다. 또 절대적으로 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투기하지 않는 인물을 꾸며내며,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칭송하였다. 이를 통해 한 남자가 여러 여인을 이끌고 평화롭고 번성한 가문을 유지한다는 남성적 가부장 사회의 신화를 재현하고 있다. 겉으로는 칭송받으면서도 속으로는 굶아가는 여성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동시에 소속회는 5처 10첩과의 싸움 때문에 또 심각한 위협에 빠졌다. 그러나 제2부인인 공주를 비롯한 5처 10첩의 상황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은 한 남성과 혼인을 하고 나면 온전히 남편에게 메인 몸이 된다. 처이든 첩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은 칠거지악 등 각종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 가능성에 늘 노출되어 있었고, 가정 내 지위에 따라 삶의 고달픔도 달라지게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소속회 같이 여군자(女君子)형 인물로 살든 공주와 같이 재색(才色)형 인물로 살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한 가정내에서 자신의 위치나 지위를 굳건히 하기 위한 ‘생존의 방식’일 수 있다. 소속회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시부모와 형님내외 등에게 인정을 받았고, 공주 등은 또 그들 나름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남편에게 인정을 받아 그들의 신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이들 여성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가통을 이을 아들 낳기를 구하며, 가정 내 제반사를 움직이기 위해 아랫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온갖 오해나 어려움이 다 풀린 후, 소씨가 하는 말은 뭐든지 다 듣

게 된 때에, 소씨는 설기수가 5처 10창에 대해서 소원함을 지적하면서 그들도 일정한 간격을 정해두고 고루 찾으라 한다.

고구기 오일을 숙직하고 첩 등 육인의기는 스일식 머무르시며 제 충은 좃기 어렵거든 외동으로 부르스 위로 하시미 엇다하시노.(332쪽)

설기수는 소속회의 말대로 하여, 6처의 방에 사흘씩 들어간다. 10창, 즉 10명의 첩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잠깐씩 외당으로 불러볼 뿐이다. 그리하여 설기수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가며 6처 10첩의 방에 골고루 들어감으로써 온 가족이 평안했으며, 그 가문이 풍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때에 소씨는 만인의 칭송을 받으며 한 위대한 부인의 지위를 성취한 듯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승리(?) 또는 여성의 성취가 아니다. 5처 10첩은 물론 자신까지도 실상 늘 남편을 기다리다가, 일정하게 자신의 거처를 찾아와 주는 남성의 처사에 감읍하며 살아야 하는 형국이다.

조선은 양반부녀자의 재혼이 금지된 사회였으며, 또 조선 후기 들어 유교 이념이 더욱 강화되어 신분이 낮은 여인들까지도 재혼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여인들이 집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것이다. 소속회가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5처 10창을 집밖으로 내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설기수에게 강권하여 그들을 소원하게 대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여성의 이런 불안정한 위치 때문이었다.

이 작품은, 한 여성이 가법을 세우고 그 가정의 중심으로서의 현부(賢婦)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통해 소속회라는 여성이 성공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그 과정에서 여인을 한껏 높여준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불완전한 위치는 변함이 없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는 아무런 흠집 없이 유지되었고 한 여인의 군자다운 행실로 한 지아비를 섬기는 6처 10첩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짓 신화도 만들어 내었다. 그이 곧 평화로운 국가와 대비되는 평화로운 가문이라고 하여 기존의 가부장적

가문질서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분명 주인공 소속회는 자아성취를 위해 노력했고 그것을 이루었건만 결과적으로 기존에 여성을 얽매고 있는 가부장적 가문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지향인물을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인 유가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군자형에 두었기 때문이다. ‘군자’는 일반적으로 학식과 덕행이 높거나 벼슬이 높은 사람, 즉 유덕자(有德者)를 나타낸다. ‘君子之交淡若水’, ‘君子不入危方’, ‘君子豹變’ 등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히 몸가짐에 관해서 군자를 설명하는 말들이 많다. 군자는 항상 집중(執中)하려 노력하며, 자기 재주를 팔아 기업을 구하지 않고, 나설 만하면 나르고 물러설 만하면 물러서면서 항상 자신을 깨끗이 지킨다.

때문에 처음부터 군자형 인물을 표방했던 소씨는 자신에게 냉담한 남편이나 자신과 소원한 제2부인 이하와 가까워지기 위해 스스로를 꾸미거나 타협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방에서 신독(愼獨)하며 지낼 뿐이다. 공주 등의 모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한 다거나 변명하거나, 똑같이 포악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도 군자형 인물의 특성이다. 그래서 소설에서, 군자형 인물은 온갖 핍박을 받지만 결국 소인은 망하고 군자는 만인의 칭송을 받는다는 전형적 스토리 구조를 구축하였다.

자기 목표인 군자형 인물이 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참고, 그 원칙에 따라 행한 일도 결국은 남성적 질서의 충실한 재현에 불과하였다. 만인이 칭송하는 위치에 오른 그의 성취를 보면서 또 한 사람의 소속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 여성은 더 철저히 규범을 지켜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존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의 강화로 이어지며, 그럴수록 여성이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소속회를 통해 자아를 투영한 작중화자나 작자는 이런 것까지 고도로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존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그 제도 안에서 자신의 성취를 이룩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외모의 문제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 작품이 여성중심적인 듯 보이면서도 또 여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억압과 폭력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이 외모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외모에 대한 선입견이 공고(鞏固)하다. 이 작품에는 여성이 매우 여럿 나오는데 이들 모두는 늘 외모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가장 먼저 걸리는 인물이 설풍교의 큰머느리이다.

중부 죽시는 풍용이 세 동서의 따르지 못하야 무염박식이라. 드만 그
니흔 바는 부녀 스텍이 가죽하야 당조의 턱스나 가부를 도으며 너조의
관덕하미 강후의 지너니 굿덕 비록 아즈의 반악디모와 적선의 풍치로
무염갓탄 박식을 이두말탄하느 쏘한 설학식 백형 군즈로 지식 공명하고
천신이 구즌흔 풍이 이작하고로 제등의 향시 중덕함과 영홍의 빙광 공
명하말 이어 관저의 이어서 금슬지락이 교칠의 이면하야 옥동 옥녀 생
생하지라.(32-33쪽)

시부모의 눈으로 큰아들 내외를 말한 부분이다. 아들은 빼어난데 며느리는 못생긴 것을 탄식하였으나 남편인 아들은 아내를 존중하였다고 한다. 이는, 일견 거안제미(學案齊眉) 고사의 주인공 양홍과 맹광처럼 이상적인 부부상을 나타내는 듯해도, 실상 박색인 아내도 존중하는 장남을 높이는 맥락이 강하다. 여전히 여성이 색과 덕 양면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기 때문에, 부족한(?) 큰 며느리는 덕 있는 아들에 의해 '이해 받고' 있는 인물이 된다.

특히 설기수의 마지막 처인 공씨를 보면, 이 작품이 여성의 외모에 대해 매우 가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눈을 드려 신부를 바라보니 천성이 흉악 영악하여 만홍을 귀신이
공시의 품슈하엿는디라. 면모는 차악흔 괴식의 스회를 칠흔 듯 양협
은 일편되히 품은 거슬 승하여 존호리의 춘 직를 셋근 듯 니마는 오악
영산이 늑파난 듯 눈섭은 일즈로 비겨시니 초목수풀의 셋근 듯 머리는
귀를 텅디 못하야 청순호치는 서로 비치고 엇개 버러디며 목이 꼭고 안

친듯 스척 신장의 삼척 허이라.(194쪽)

공씨가 설씨가로 시집오는 날을 그린 부분이다. 아예 처음부터 공씨를 괴물의 모습처럼 묘사하고 있다. 게다가 ‘천성이 흉악영악’하다고 단정하며 그에 맞게 최대한 외모를 추하게 표현했다.

그의 성질 역시 도저히 있을 법 하지 않게 극단적으로 그려놓았다. 공주가 음모를 꾸며 소씨를 해하려 하는 것은 자세하면서도 실감나게 묘사하며 사건을 결구(結構)시켰으나 공씨의 경우는 그럴 듯한 이야기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포악하게 그려 놓았다. ‘어시의 괴수 두 부인을 가두고 조·문과 공주로 더부러 화락하니 잇다감 공씨을 청한즉 공시 투기에선 선봉이라. 싱을 만난즉 투악과 흑영이 싱풍하니 무서운 거동이 밍호갓더라. 싱이 크게 우니 역여 심당의 드리쳐 두고...’(227-228쪽) 하는 등 그 예가 종종 나온다.

소속회는 덕의 화신이라 할 만 하면서 동시에 내로라하는 모든 미인을 일거에 부끄럽게 만들어 버릴 만한 미인이었다. 완벽히 군자다운 인물 소씨가 미모에서조차 세상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여성에 대한 신화적인 믿음일 뿐이다.

요컨대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공이 인정되고 여성의 자아실현이 인정되는 작품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 남성이 자기를 중심으로 세운 온갖 규제나 법칙들 속에서 불완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삶이 그대로 잔존하는 작품이다. 비록 여성의 자아실현이라는 걸모습으로 포장되었으나, 당대 가부장적 세계와 그 기준은 여전히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소현성록>의 파생작인 <설씨이대록>을 중심으로 그 작

품의 지향과 성취를 논하였다.

이 작품은 설기수와 소속희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이에 따른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이 작품의 주 독자와 창작층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작품의 전개와 결말 부분까지의 내용전개를 볼 때 여성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실상에 좀 더 가깝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여성주인공 소속희가 스스로 특정한 인간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가 삶에서 실제로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남편과 가족은 물론 국가적인 면에서도 칭송받는 것을 그린 작품이다. 당시 여성의 활동 범위가 가정으로 한정되었기에, 소속희라는 한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아를 실현'한 것이 결국은 '가법확립'이라는 업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은 이것은 남성이 바깥에서 활동하여 국가적인 영웅으로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국가'라는 활동장이 '가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요컨대 이 작품은 여성 인물의 자아성취에 대한 욕망과 시련 극복과정, 그리고 그 성취를 형상화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가정소설 또는 가문소설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이나 시각을 적용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가법질서의 확립을 그저 가문의식의 정립을 내세우는 17~18세기 가문소설의 특징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 여성의 '자아실현'의 의미였다. 여성의 주 활동무대는 가정이었으므로 그 업적이나 성취의 내용이 온전한 가법 확립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한 나라를 평안하게 인도한 남성을 '현상(賢相)'이라 하며 그 성취를 높이 사듯, 한 가정을 평안하게 다스리고 이끈 여성은 그와 동등한 성취를 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 작품은 <소현성록>에 근원을 둔 작품임으로 <설씨이대록>과 <소현성록>, 또는 <소현성록> 연작이거나 파생작인 다른 여러 작품들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할 때 보다 작품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들 작품들과의 비교를 깊이 있게 수행하지 않은 채 우선 <설씨이대록>에만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주제어 : 설씨이대록(Seolssi-idaelok), 소현성록(sohyeonseonglok), 여성(woman), 군자(wise man), 가부장제(patriarchal system), 가법(家法)(a code of household regulations), 자아실현(Realization), 소속회(So-Suk-hui), 설기수(Seol-Gi-su)

참고문헌

- 김수봉 역주해, 『설씨이대록』, 국학자료원, 2001, 30-351쪽.
- 강혜선, 「농암 김창협외의 묘지명 연구」,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8, 387-408쪽.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6, 1-197쪽.
- 박영희, 「설씨이대록 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11집, 2005, 50-79쪽.
-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27-154쪽.
- 이순구,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0집, 한국고전여성학회, 2005.6, 136-137쪽.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9-242쪽.
-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37-68쪽.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장편 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4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293-327쪽.
- 조용호, 『삼대록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6, 1-482쪽.
- 차충환, 「화씨충효록과 제호연록의 연작관계 고찰」, 『어문연구』127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9, 211-233쪽.

<Abstract>

Realization of woman's hope in <Seolssi-idaelok>

Seo, Shin-Hye

<Seolssi-idaelok> is the novel that <Sohyeonseonglok> is expanded. This two novels have many characters in common.

In <Seolssi-idaelok>,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is So, Suk-hui. She desired to do self-achievement. She directed her efforts to be a wise man. Although she was pressed by her husband's other wives and concubines, she always controled herself. Finally She built up the family crest's peace. And she was highly thought of by all nation and family. That is the best and only way woman to do success in life. Because a home is the only zone of life for woman to be active.

But the honor is not all woman but So, Suk-hui. The other woman still afflicted with a patriarchal system.

<Seolssi-idaelok> is successful in one woman's hope but don't liberate all woman from a violence in a patriarchal system.

서신혜
한양대 강의전담 교수
전화: 018-213-2448
e-mail: sh2448@hanmail.net

이 논문은	2006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6월	30일	간행함